

세계 경제 전망 2008~2009*

권 오 복

세계 경제의 둔화는 2008년 하반기에도 계속되고 2009년 하반기 즈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3.9%, 2009년 2.8%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미국 및 기타 OECD 국가들의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경제국들의 경제는 빠른 성장세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전망이다.

1.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지속될 듯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둔화는 2008년 상반기에도 계속되었다. 2008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1% 낮은 약 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둔화는 OECD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제의 정체와 신흥경제국들의 성장둔화에 기인한다.

경제 둔화는 당초 예상보다 덜하지만 최근의 세계 경제 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OECD 국가에서는 소비 심리 위축과 제조업 생산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흥경제국에서도 경기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둔화는 2008년 상반기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둔화는 OECD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제의 정체와 신흥경제국들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다.

* 본 내용은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세계 금융 시장 여진이 불안정

미국 내 주택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미국 금융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현재 세계 금융권에서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줄어들었으며 일부 은행에서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지만 재무사정은 압박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주식시장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세계 주식 시장은 침체되고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정체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가장 큰 퇴조는 금융 및 관련 사업 부문, 그리고 소비자 관련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 금융권에서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줄어들었으며, 일부 은행에서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지만 재무사정은 압박받고 있다.

표 1 세계주식시장 동향

구 분	주식시장 지수		
	52주간 최고치 ¹⁾	2008년 9월 중순	변동률(%)
OECD			
미국	14,198	10,918	-23.1
일본	17,489	12,215	-30.2
유럽	3,937	2,859	-27.4
호주	6,829	4,818	-29.4
동아시아			
중국	6,396	2,182	-65.9
한국	2,065	1,443	-30.1
대만	9,860	6,252	-36.6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830	1,870	-33.9
말레이시아	1,516	1,041	-31.3
필리핀	3,874	2,673	-31.0
싱가포르	3,831	2,487	-35.1
태국	915	647	-29.3
인도	20,873	14,324	-31.4

주: 1) 2007년 9월 중순부터 2008년 9월 중순까지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높아 소비자물가가 상승국면에 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문제가 불거진 2007년 7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이 70달러였던 것이 2008년 7월에는 145달러까지 치솟다가 2008년 9월 중순부터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식품과 연료가 소비자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흥경제국에서 더 현저하다. 이들 신흥경제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뤄 충격 흡수 능력이 감소하였다. 유럽연합,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수차례 이자율을 올렸다.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높아 소비자물가가 상승국면에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향후 12개월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경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겠지만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재정 금융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 감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는 최근 에너지 보조를 줄이기로 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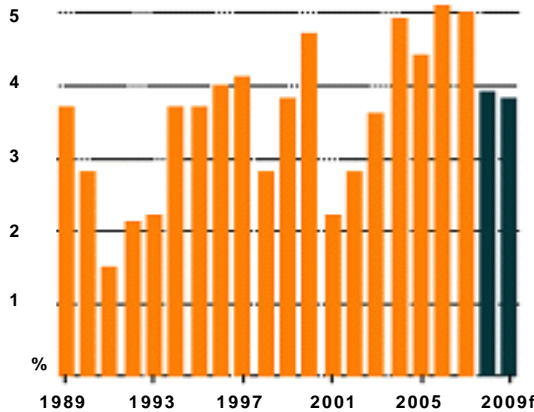
세계 원유는 증산 여력이 크지 않아 공급 반응이 신속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은 늘 존재한다. 기술적, 지리적, 정치적인 제약 하에서 추가적인 원유 생산에 높은 투자비용이 수반되므로, 원유 생산이 완만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원유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유의 여유 생산능력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시장 상황도 수급에서 여유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정학적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이번 전망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007년의 5%에서 2008년에는 3.9%, 2009년에는 3.8%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계 경제는 2009년에 가서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나머지 기간과 2009년에 세계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역사적인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경제는 2009년에 회복하기 전에 다소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 전망



미국 경제의 정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서유럽과 일본 경제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경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며, 성장 동력은 연말 중에 분명해 질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흥경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외부 수요는 약화될지 모르지만, 공공부문 지출과 같은 내수가 신흥경제국들의 단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세계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f	2009 f
경제성장률					
OECD	%	3.1	2.7	1.3	0.9
미국	%	2.9	2.2	1.2	0.8
일본	%	2.4	2.1	1.0	0.9
서유럽	%	2.8	2.6	1.3	0.9
독일	%	2.9	2.5	1.8	1.1
프랑스	%	2.2	2.2	1.0	0.9
영국	%	2.9	3.1	1.1	0.8
한국	%	5.1	5.0	4.3	4.2
뉴질랜드	%	1.5	3.0	0.7	1.6
개발도상국	%	7.6	7.8	6.7	6.3
비OECD아시아	%	9.1	9.3	7.7	7.3
동남아시아	%	5.9	6.3	5.2	5.2
중국	%	11.6	11.9	10.0	9.3
인도	%	9.8	9.3	7.7	7.3
남미	%	5.5	5.6	4.5	3.6
러시아	%	7.4	8.1	7.5	6.8
동유럽	%	6.6	5.6	4.6	4.5
세계	%	5.1	5.0	3.9	3.8
미국 우량 금리					
미 달러 환율					
대 엔화	엔	116	118	107	111
대 유로화	유로	0.79	0.73	0.68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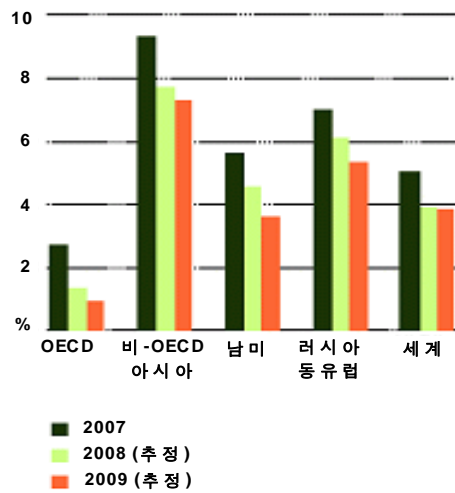
자료: ABARE, IMF, OECD

세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위험

현재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적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지만 기업 투자에 대한 여신을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의 경제 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다. 동시에 세계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정책의 폭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금융 부문의 조정 기간은 자국내 주식 시장의 안정화에 달려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 소비자들의 자신감과 지출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저축이 원유 소비자로부터의 생산자에게 이전되어, 세계적인 불균형이 증가해 왔다. 2007년 경상수지 적자국이 5년 전에 비

그림 2 주요 지역별 경제 성장 전망



해 증가했고, 국내총생산대비 적자폭의 크기도 확대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갑작스런 자본 흐름의 변화가 환율과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고유가가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이룬 경상수지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무역수지는 국내총생산의 3%로서 2006년 4.5%보다 낮은 수준이다. 만일 최근의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된다면,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수요가 현재 가정하는 것보다 더 활발할 수 있다.

식료품 가격 상승

지난 몇 년간 곡물, 채유용종실,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예를 들면 밀의 세계 가격이 2006년 중순 이래 74% 정도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 콩, 주요 낙농제품(치즈, 버터, 탈지분유) 가격은 70%에서 140% 가량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식량안보와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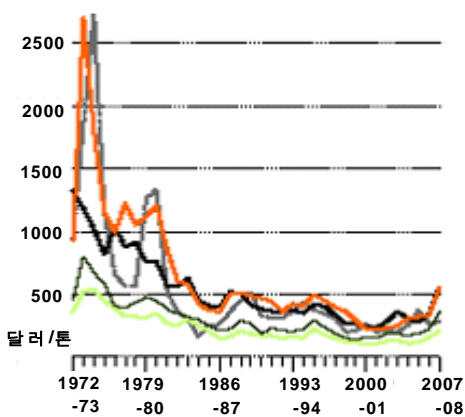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 농산물 가격은 1970년대 중반 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후, 다시 세계 각국의 화폐로 환산된다. 미국 달러화와 주요국의 화폐가 명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화폐로 표시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상승률보다 낮다.

현재에도 1970년대에 제기된 식량안보와 자원 가용성에 대한 관심이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가격이 오른 농산물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식품 수요가 매우 높고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연료 형태의 공업적 수요도 생겨났다. 동시에 농업인들은 토지에 대해 도시, 공업, 환경적인 용도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 수자원 부족과 기후 변화는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 세계 식량 생산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R&D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량 증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만이 세계 식량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식량안보와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OECD국가와 신흥경제국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림 3 세계 농산물 가격 추이



2. 주요국의 경제 전망

미국

2008년 2/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의 1.9%보다 높은 3.3% 성장하였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높은 소비 지출과 수출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효과는 주택 및 기타 민간투자 지출의 감소로 다소 상쇄되었다.

미국 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최근 공개된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2008년 나머지 기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노동 시장 조건이 취약해졌고 주식시장이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경색적인 신용조건, 주택부문의 지속적인 정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 온 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6% 상승해 과거 17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에 이른다.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제 유가와 다른 상품 가격의 하락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망은 미국 경제가 2008년 1.2% 성장하고, 2009년에는 0.8%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9년도의 성장률 감소는 주로 하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 및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기업투자와 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방적인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공급과 같은 활발한 정책대응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점도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경제 전망 하에서 미국의 금융정책은 단기적으로 수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는 2008년 9월 초 2%로서 전년도 같은 시기의 5.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난 수년간 고도성장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2008년 상반기에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2008년 2/4분기 중국의 실질 GDP는 10.1% 성장하여 전년 동기 10.6% 및 2007년의 11.9% 수준보다 다소 낮았다.

중국경제는 쓰촨성 지진과 중국 남부 지역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008년 2/4분기 중국의 수출도 전년대비 21.9% 증가에 머

미국 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조건이 취약해졌고, 주식시장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상반기에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2/4분기 중국의 실질 GDP는 10.1% 성장하여 전년 동기보다 다소 낮았다.

물려, 2007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25.7%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2/4분기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은 14.7% 증가하여 중국 국내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경상 기준) 전년 동기대비 26.3% 높은 수준이었다. 식료품 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2008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4.9% 상승하였다. 2008년 2월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8.7%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08년 중국의 경제는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은 2008년보다 다소 낮은 9.3%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 요인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국제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정,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외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내수가 활기를 띌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적 금융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08년 9월 중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한 바 있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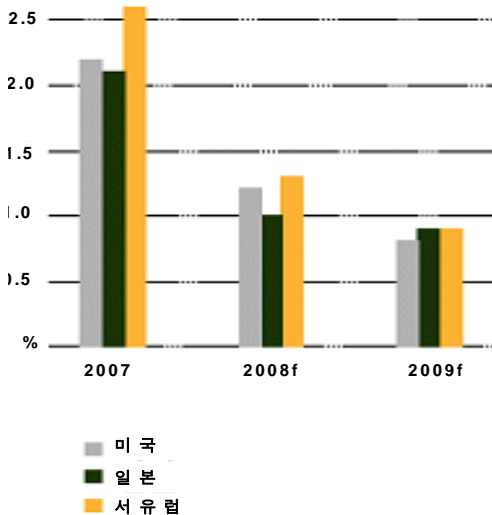
일본 경제는 2009년 1/4분기에 3.2%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래 2/4분기에는 2.4% 성장에 그쳐 성장세가 주춤했다. 2008년 일본 경제활동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2008년 나머지 기간 동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 상반기의 생산 원가의 상승과 이윤 감소에 따라 기업부문의 자신감이 줄어들고, 일본의 제조업 생산과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에 따라 일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본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이 일본의 주요 수출시장인 반면 미국과 서유럽 시장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수출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것이다.

2007년에 2.1%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2008년에는 1%, 2009년에는 0.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OECD 경제 성장



서유럽

2008년 상반기 서유럽 경제는 2007년 상반기 성장률 2.6%보다 낮은 1.5% 성장에 그쳤다.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고유가가 실질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되었다. 유로화의 강세와 수출의 부진은 서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 둔화 정도가 유럽 전역에서 같은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경제 사정은 추세보다 낫다. 이들 국가의 경제사정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유럽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프랑스 경제의 경우, 2008년 2/4분기에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약간 높은 1.4%를 기록하였으며, 이탈리아 경제는 전년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근 유럽의 시장은 미국의 경제 둔화가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 국제 유가의 강세와 주식 시장의 침체가 투자 및 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경제와 미국 경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아시아, 유럽 및 중동의 신흥경제국과의 무역이 증대하여 유럽의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작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무역연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융 부분의 연계는 최근 미국 금융 시장의 여파가 유럽에 전달되게 한 주요 요인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노출로 인해 유럽의 수많은 상업은행과 신용 시장이 위축되었다. 그 결과, 신용 조건에서 여유가 없어지고, 유럽 경제 성장에 하방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내 수요에도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강세로 인해 2008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3.8% 상승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완만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여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경제는 2008년 1.3%, 2009년에는 0.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OECD외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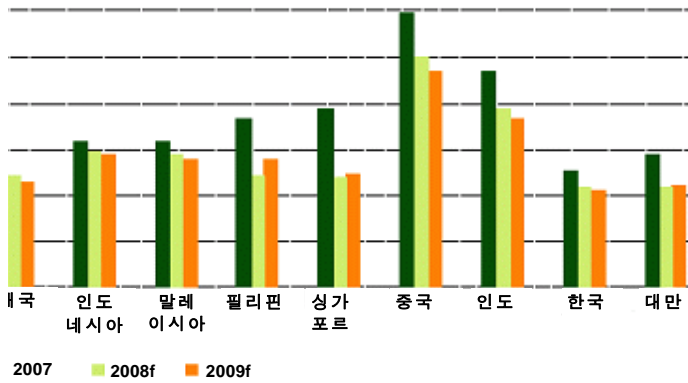
최근 금융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최근 경기 후퇴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인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고도성장에 이어 둔화조짐을 보인다. 인도 경제는 2008년 2/4분기에 전분기의 8.8% 성장에 이어 7.9%의 성장을 보였다. 인프라 지출이 경제 확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 몇 달간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 상반기 서유럽 경제는 2007년 상반기 성장률 2.6%보다 낮은 1.5% 성장에 그쳤다. 유로화의 강세와 수출의 부진은 서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경기 후퇴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5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 전망



제조업 생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인도의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12%나 상승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인도의 중앙은행은 2008년 6월 이래 세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이자율이 과거 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7.3%로 나타났다.

기타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불안정한 국제 금융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의 미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지역 내 무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럽과 역

내 국가에서의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과 국제 유가의 강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압력 때문에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 경제는 2007년에 9.3% 성장했으며, 2008년 7.7%, 2009년에는 7.3%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호주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 편인데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호주 경제 성장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가계소비의 감소에 있다.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 편이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2008년 2/4분기 호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분기 0.7%보다 낮은 0.3% 상승에 그쳤다. 2007~08년 전체적으로 호주 경제는 3.7% 성장하였다. 이는 2006~07년 경제성장률인 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호주 국내 수요 중에서도 특히 가계소비의 감소에 있다. 최근 발표된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호주 국내 수요가 계속해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초에 3.9%였던 실업률이 2008년 8월에는 4.1%로 늘어났다. 2008년 상반기 소매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4분기 호주의 무역 수지는 5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전분기 73억 달러의 적자와 대비된다. 1/4분기와 2/4분 경상수지는 각각 198억 달러,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호주 상품에 대한 해외 수출은 계속해서 강세를 띠어, 호주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호주의 국내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요인 속에서 2008~09년 호주 경제는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조건이 평년 수준일 경우, 2008~09년 농산물 생산은 10.5%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경종작물 생산을 2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축산물 생산은 1.4% 감소할 전망이다. 2008~09년 광물 생산은 6.8%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제한된 공급 능력으로 인해 호주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4분기와 2/4분기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3%, 1.5% 상승하였다. 호주의 국내 수요가 완만하다고 가정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2008~09년 전체적으로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3.5% 수준으로 전년의 3.4%보다 0.1%p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는 2008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2008년 중순부터 약세로 돌아섰다. 호주 달러는 2008년 7월 중순에는 미국 달러대비 98센트, 2008년 9월 중순에는 80센트에 거래되었다. 2008~09년 3개월간(7~9월) 미국 달러 대비 호주달러는 90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호주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08년 7월 중순 0.63유로에서 2008년 9월 중순에는 0.70유로로 상승하였다. 2008년 2/4분기 이래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 등 세계의 주요 경제권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띠었다.

호주 달러 약세의 또 다른 요인은 호주 금융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이다. 2008년 9월초,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기준 금리를 25% 인하하였다. 호주와 다른 나라간의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호주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호주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리라는 기대 속에 호주의 우량 대출 금리는 2007~08년 7.7%에서 2008~09년 7.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6월경 미국의 우량 대출 금리는 5%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간 금리차가 많이 좁혀졌다. 2008~09년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85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Marina Kim and Jammie Pen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3, September Quarter 2008.

그림 6 호주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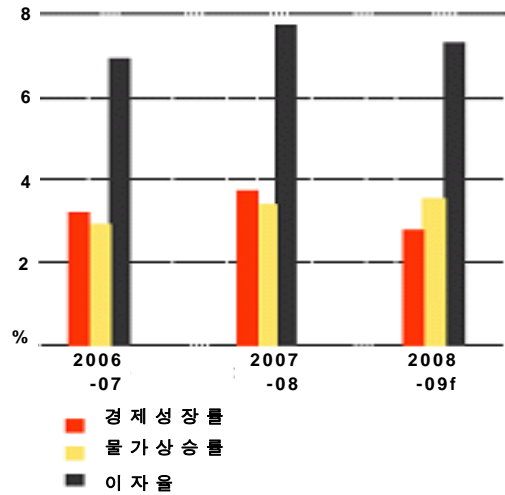


그림 7 미국-호주의 환율

